

16세기 대위법

제 I 장 서론

1. 정의 (Definition)

16세기 대위법은 일명 선법대위법, 종별대위법, 등으로 불려진다.

16세기 대위법의 특징은

- 1) Gregorian Chant를 정선율Cantus firmus로 한다.
Renaissance 이전 모든 음악은 Gregorian Chant와 함께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 2) Gregorian Chant는 단선율에서 이른바 Measured Rhythm이라고 부르는 낭송양식을 따른다. Chant는 교회선법(Church Mode)을 바탕으로 한다.
(* 단선율 음악은 근본적으로 선법양식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 3) 대부분 가사(Text)를 갖는 성악곡 양식에 속한다.
G. Chant는 Latin어를 사용하지만 Motet 등에서는 제2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혹은 동시에 각 성부에서 서로 다른 Text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서로 다른 가사, 각각 다른 선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4) 가사의 다양한 음절로 인해서 다양한 리듬의 대위 기술로 발전되었다.
(* 선법양식에서 변화의 기술은 선율, 리듬의 다양성에 있다.)
- 5) 이로부터 대위법 기술은 5가지 종류로 고안되고 또 발전되었다.
제1종 -- [1 : 1]
제2종 -- [1 : 2]
제3종 -- [1 : 4]
제4종 -- [1 : 당김]
제5종 -- [1 : 혼합]
- 6) 이 5종 대위법 기술은 둘 이상의 성부에 적용되어 합리적으로 발전되었다.
이 외에도 1:3, 1: 6 등의 리듬, 또는 자유로운 선율 간의 자유대위법,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위의 5종류 대위법의 응용이다.

2. 선법(Mode)

16세기 대위법은 고대Greece Mode 6가지 선법을 기초로 한다.

1) 선법 음계는 두개의 4현음계 Tetraqchord로 구성된다.

* 그 중 3개 모드는 전후 구조가 같아 대칭적이며

[Ionian, Dorian, Phrygian]

* 남은 3개 모드는 전후가 다른 비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Lydian, Mixo-lydian, Aeolian]

2) 이 선법을 밝은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Lydian, Ionian, Mixo-lydian, Dorian, Aeolian, Phrygian

이 중 앞의 셋은 3음이 장3도로 장음계에 속하며

뒤의 셋은 3음이 단3도로 단음계에 속한다.

3) Gregorian 성가에서 시작과 마침음의 사용에 따라서

<정격Authentic> <변격 Plagal> 등으로 구별된다.

또 낭송음은 딸림음<Dominant> 이 담당했다.

4) 선법 진행상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 반음이 도입되었다.

그 중에 [파-시]의 증4도(Tritonus)를 피하기 위해서 Bb, F#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 C#, G#,이 도입되었다.

5) 임시표(Musica Ficta)의 사용으로 조 옮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Bb을 사용하는 F조가 가장 먼저 등장했고 F#을 사용하는 G조 출현이 다음이다.

6) Renaissance에서 Baroque에 이르는 Organ 조율은 선법에 기초하여 Pythagorian Ratio를 따랐다. 음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C#	Eb	F#	G#	Bb		
C	D	E	F	G	A	B

3. 선율 (Melody)

16세기 대위법의 선율은 모두 성악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선율은 노래 할 수 있는 음역에 있어야 한다.

1) 대위법 연습은 정선율(Cantus firmus)에 대선율(Counter Melody)로 구성된다.

2) 정선율은 Gregorian Chant를 기초로 한다.

가) 정선율은 운음표 만을 사용한다.

정선율은 특정 리듬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음악적인 선율이라 할 수는 없다.

나) 정선율은 8-16개 정도의 음으로 구성되며 음역은 10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정선율의 시작과 마침은 으뜸음이어야 한다.

라) 같은 음의 반복, 연속음, 일정한 음형의 반복, 동형 진행, 등은 이 시대 양식이 아니다.

3) 대선율은 4성부로 각각 합당한 성부음역 안에서 C 보표로 표기한다.

4) 선율운동은 순차와 도약으로 이루어진다.

가) 순차 혹은 도약만으로 선율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조화 있는 적당한 변화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든다.

나) 도약은 선율의 중단과 함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긴장감을 가져온다.

ㄱ) 따라서 도약 후 선율이 되돌아 와 부족함을 해소시켜야 한다.

ㄴ) 노래하기 힘든 불협화 음정의 도약은 좋지 않으며 도약 후에 불안함이 해소 되도록 진행하라.

ㄷ) 도약의 연속은 좋지 않으며, 부득이 한 경우라면 화성적으로 합당하게 진행하라.

5) 음역이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운동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격한 것은 좋지 않다.

6) 선율에서 증감 음정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표(Musica Ficta)를 사용한다.

가) <F-B>의 증4도를 피하기 위해서 Bb, F#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나) A-B-A의 경우에 Bb을, G-F-G의 경우에 F#을 사용한다.

다) G#은 Aeolian, C#은 Dorian의 이끄임에서 주로 사용한다.

라) 4도 위로 조 옮김 하는 경우 Bb은 Eb으로 표기한다.

4. 화성(Harmony)

다성부 양식에서 각각의 대위성부 간에서 화성 관계는 우연적이다.

1. 성부 사이의 화성관계는 완전협화, 불완전협화, 불협화의 세가지로 구별된다.
 - 가) 완전협화(완전 1, 8, 5도)는 성부 간의 강한 결속으로 흐름을 약화시킨다.
 - 나) 불협화(장-단 2, 7도, 증4-감5도)는 성부의 충돌로 흐름을 교란시킨다.
 - 다) 불완전협화 (장-단 3, 6도)는 무난한 성부 흐름을 보장한다.
 - 라) 완전4도, 기타의 증감음정, 등은 불협화로 취급한다.
2. 동시에 울리는 음은 반드시 협화음이어야 한다.
3. 완전협화음은 ;
 - 가) 시작과 마침에서 바람직하다.
시작음은 완전 1, 5, 8도, 마침은 완1, 8도가 되어야 한다.
 - 나) 완전협화음은 서로 순차 반진행의 경우 가장 바람직하다.
4. 성부의 연속된 완전협화음의 병진행(병행 완전1, 5, 8도)은 금한다.
완전협화음의 병진행은 선율의 개개성을 저해하고 흐름을 약화시킨다.
5. 유사진행 뒤에서 완전협화음으로의 도약은 숨은병행(은복)으로 금한다.
6. 불완전협화음 장단3, 6도의 진행은 4회를 넘지 않는 한 바람직하다.
7. 이웃 성부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8. 여러 성부가 만드는 3화음의 경우;
 - 가) 장단3화음과 제1전위는 협화음으로 바람직하다.
 - 나) 증감3화음은 불협화음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3화음의 제1전위는 사용이 가능하다.
(Bass와 불협화 음정이 없기 때문이다.)
 - 다) 3화음의 제2전위는 사용할 수 없다.
(Bass 4도 위에 불협화가 있기 때문이다.)
9. 시작과 마침은 주화음(I)이어야 한다.
10. 마침 앞에서 이끔의 예비화음은 갖추어진 3화음 이어야 한다.

5. 종별대위법(Species Counterpoint)

제1종 1 : 1 ;

오직 함께 울리는 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리듬도 박자도 없는 두 선율에서 선율의 선형성과 수직화음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 성부 관계의 연습.

제2종 1 : 2 ;

<박>의 탄생.

<함께 울리는 음>과 <혼자 울리는 음>의 차별이 생겨난다.

차별은 <강-약박>의 <리듬>을 만들고

동시에 이 리듬을 헤아리기 위해서 <박자>가 생겨난다.

제3종 1 : 4 ;

<1/2 박>의 출현.

박과 박 <사이-박>이 생겨난다.

강박과 약박, 그 사이에 2개의 사이-박, 등 4개 음에 관한 차별이 생겨난다.

함께 울리는 음은 반드시 협화 이어야 한다.

제4종 1 : 당김 ;

박자 조직의 변화

이음줄에 의한 강-약박 이동이 생겨난다.

두 성부가 서로 어긋난 박자로 진행함으로써 리듬과 박자의 충돌이 발생한다.

제5종 1 : 혼합 ;

모든 종류의 리듬 사용이 가능해진다.

혼용대위법 :

위의 5가지 연습을 혼합시킨 연습.

자유대위법 ;

그레고리안 성가를 벗어나 여러 성부가 자유롭게 진행되는 연습.

제 2 장 2성부 대위법

1. 제1종 [1 : 1]

리듬도 박자도 없이 오직 두 선율 간의 화음관계만 있다.
오직 협화음만 사용한다.(함께 올리는 음은 협화의 법칙)
시작과 끝에서 완전한 어울림을 이루어야 한다.

1. 온음표만 사용한다.
2. 협화음정만 사용한다.
3. 완전1도는 시작과 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성부 교차 시에 사용할 수 있다.
4. 병진행 완전 8도, 5도 / 숨은병행(은복) 완전8도 5도를 금한다.
반진행의 경우라도 완전5도나 8도의 연속은 금한다.
완전8도, 5도를 교대로 할 경우에도 한성부는 순차 반진행이 좋다.
5. 장단3,6도를 연속해서 4번 이상 사용은 피하라.
6. 같은 음의 반복은 금한다.
그러나 이음줄로 연결은 할 수 있다. (단, 한 문제에 한번)
7. 마침은 언제나 순차 반진행하여 주음으로 끝나야만 한다.
이끔음이 마침과 반음을 이루도록 <임시표>를 사용하라.
(단 Phrygian 선법에서는 Fa가 이끔음 이다.)

2. 제2종 [1 : 2]

리듬과 박자가 생겼다. 시작 박은 <강> 둘째박은 <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강-약>박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
강박은 함께 올려 항상 협화를 이루어야 한다.(1:1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
약박은 대선율만 올린다. 불협화는 반드시 순차 경과음 이어야 한다.

1. 대선율은 첫마디 약박에서 시작한다.
2. 선율의 반복, 반복음, 붙임줄은 모두 금한다.
3. 큰 도약 후 반대방향으로 순차진행 하라.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약 역시 큰 도약의 경우와 같다.

4. 강박은 항상 협화 이어야 한다.
약박의 불협화는 순차 진행하는 경과음 이어야 한다.
5. 연속되는 강박에서 증4도(감5도)불협화를 피하라.
6. 강박 사이에서 연속되는 완전 5도, 8도의 병진행, 숨은 병행은 금한다.
약박 사이의 연속되는 완전5도, 8도의 병진행은 허용된다.
7. 그러나 반진행 연속하는 강박의 완전5도, 8도는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한 성부는 반드시 순차 진행하라.)
8. 완전1도를 약박에서 사용할 수 있다.
9. 마침 마지막 음은 1종에서와 같다.
마침 전 마디에서 온음표를 사용 할 수 있다.

3. 제3종 [1 : 4]

강박과 약박 사이에 사이박(반박자)이 생겨났다.
정박과 사이박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
정박은 항상 어울림이어야 한다.
사이박에서 순차적으로 불협화음(경과음 보조음)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선율은 첫마디에서 반박자 쉬고 시작한다.
2. 선율의 두 번 이상의 도약이 허용된다.
다만, 연속도약 후 순차 반진행하라.
3. 완전 1도는 첫 강박에서만 사용 할 수 없다.
(시작과 마침에서는 제외된다.)
4. 완전5도, 8도의 병행은 연속된 화음에서, 강박과 강박 사이에서 금한다.
(강박 사이에 연속되는 완전 5도, 8도 화음 사이에 협화음이 있으면 허용된다.)
5. 도약하는 불협화음, <이중보조음>과 <노타 캄비아타>의 사용이 허용된다.
 <이중보조음> :
 5음으로 구성되며, 제2보조음, 제3보조음이 3도 도약 후 반진행 해결한다.
 이 때에 제2음과 제5음이 같아야 한다.
 <Nota Cambiata>
 5음으로 구성되며, 하행하는 제2음에서 진행방향으로 3도 도약 후, 순차로 반진행,
 제5음에서 해결된다. 제1,3,5음은 협화음이고, 제2음과 제5음은 같다.
6. 마침 한마디 전에서, 제1종 또는 제2종의 마침이 가능하다.